



## 유럽 증시, 에너지 우려 부각되며 하락

### 유럽 증시 리뷰

5 일(월)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유럽 증시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 ECB 통화정책회의 75bp 인상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마감(STOXX 600 -0.6%, DAX -2.2%, FTSE 100 +0.1%, CAC 4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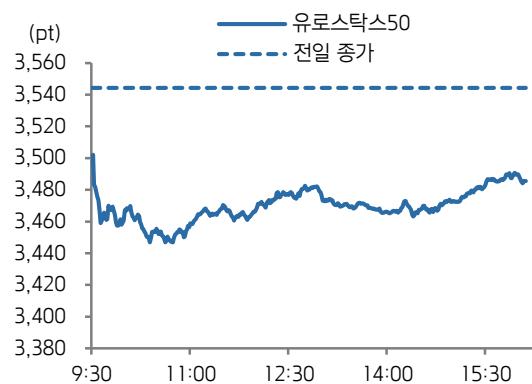
독일 부총리가 원전 3 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고 내년 4 월 중순까지 원전 2 곳을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원전 3 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계획했지만,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 축소로 원전 가동을 시행. 이번 결정은 겨울철 가스 부족에 대비한 것에 기인했지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우려 확산되며 증시 낙폭은 확대.

유로존 경제지표 역시 부진하게 발표되며 3 분기 경제성장을 위축에 대한 우려 부각. 유로존 8 월 서비스업 PMI는 49.8(예상치 50.2, 전월치 51.2)로 집계되며 18 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위축 국면에 진입. 독일 8 월 서비스업 PMI 역시 47.7(예상치 48.2, 전월치 48.2)로 부진.

유로존 7 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3%(예상치 0.4%, 전월치 -1.0%) 증가를 기록하며 (+) 전환했지만 예상치 하회. 9 월 센티스 투자자기대지수는 -31.8(예상치 -26.8, 전월치 -25.2) 기록.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가 전월 -16.3 -26.5, 미래경기에 대한 평가지수가 -33.8 -37.0으로 심리가 개선되었던 8 월 대비 낙관론이 크게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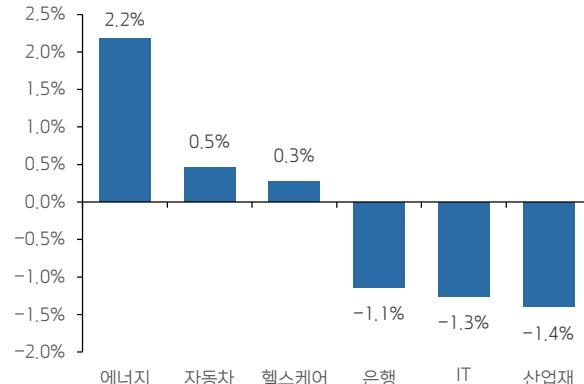
OPEC+는 5 일 정례회담에서 10 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 10 만 배럴 감산에 합의.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증산했던 10 만 배럴을 되돌리며 지난 8 월 생산량으로 회귀. 발표 직후 유가는 배럴당 90 달러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89 달러선에서 하향 안정.

### EUROSTOXX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24.26	-1.07%	USD/KRW	1,371.92	+0.65%
NASDAQ	11,630.86	-1.31%	달러 지수	109.82	+0.26%
다우	31,318.44	-1.07%	EUR/USD	.99	+0.02%
VIX	25.99	+2.04%	USD/CNH	6.94	+0%
러셀 2000	1,809.75	-0.72%	USD/JPY	140.59	-0.01%
필라. 반도체	2,599.26	-1.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737.61	-1.26%	국고채 3년	3.615	-6.7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65	-6.5bp
Eurostoxx50	3,490.01	-1.53%	미국 국채 2년	3.387	+0bp
MSCI 전세계 지수	604.93	-0.34%	미국 국채 10년	3.189	+0bp
MSCI DM 지수	2,596.70	-0.3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67.80	-0.43%	WTI	88.82	+2.24%
MSCI 한국 ETF	55.93	-1.32%	금	1721.2	-0.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0.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 바이오 등 성장주들의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여부
2. 자동차, 전기전자 등 고환율 수혜주들에 대한 자금 유입 가능성
3. 장중 원/달러 환율 변화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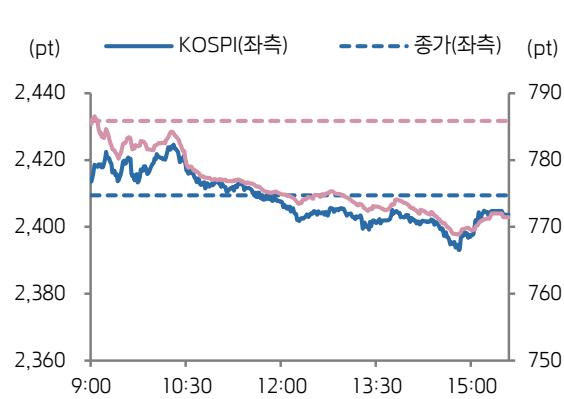
지난 3 일 러시아 가즈프롬의 노드스트림 1 운행 재개 무기한 연장 사태 이후로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둘러싼 산유국들과 서방국들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시에도 불확실성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 5 일 OPEC+ 회담에서 일간 10 만배럴 감산 결정을 내린 것도 수요 감소 전망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표면적인 배경. 이에 더해 7 월 중동 순방 당시 바이든의 증산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도 있는 만큼, 원유시장에서 산유국들이 미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겨울철 수요를 대비해 천연가스 재고 확보에 나섰고, 미국 등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는 모습. 이 같은 산유국과 서방국가 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자체는 높아질 전망이나, 유럽, 중국, 미국 등 전반적으로 실물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가격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런 맥락에서 9 월 중 증시 변곡점이 될 예정인 미국 8 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YoY) 컨센트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전월대비(MoM)로는 -0.1%(헤드라인 기준, 7 월에는 0.0%를 기록)이 컨센트를 감안 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경로는 유효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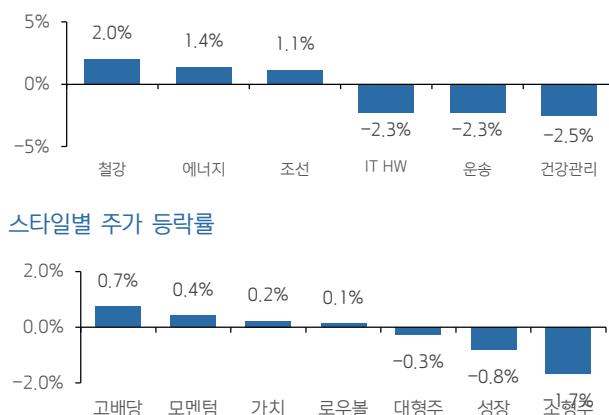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중 1,370 원대에 진입한 환율 급등, 러시아발 에너지 불확실성, 바이오 주들의 동반 약세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1.8%). 금일에는 유럽 증시 장중 낙폭 축소, 미국 선물시장 상승,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의 급락 과도 인식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방어 차원에서 외화지준율 200bp 인하를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 시 장중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진정시키면서 증시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전망.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8 월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향(+13.7%), 아세안향(+21.7%), EU 향(+7.3%)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이 견조하다는 점도 시장 대응 전략에 반영해볼 필요. 당분간 1,300 원대 이상의 고환율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2분기 평균환율 1,260 원대), 해외시장에서 추가적인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출 및 수주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참고: 8 월 한국 수출, 달러 표시 6.6% vs 원화 표시 21.1%).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